

## 남의 풀매에 밤 주워먹는 사례를 버리자!



이 희 동  
(국수농장 대표)

“**삼**이 힘들다”, “지난 과거는 좋았는데...”, 좋은 점은 칭찬하지 못하고 나쁜 점만 들추어 지적하는 세대의 흐름 속에 “내가 아니면 남들은 못할 것이다.” 하며 독불장군 처럼 자기 주장만이 정당하고 옳다는 고성! 정말 옳은 소리일까?

나이가 들고 힘이 모자라 사업을 전향해 삶에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중년에 육계 사육업에 발을 들여놓은 지금의 현실은 정말 혹독하고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것 같다. 지난 2002년 월드컵 이후 장기간 이어온 육계불황..., 뒤이은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그래도 따뜻한 봄도 오려니 기대하면서 봄을 맞이하였건만, 폭설 피해 등으로 더 어려운 갑신년이 되고 있다.

작년 한해가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부장직이라는 큰 일을 맡아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일년의 시간을 분과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한 만큼 그 때 그 시간을 조용히 회고해보고 앞으로의 육계발전 방안을 언급하고자 한다.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 민족의 큰 희을 그었던 어느 위인은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는 극단의 명언을 한 바 있듯이 우리 육계 사육농가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몽쳐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몽쳐야만 산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몽칠 수 있는 여유를 각자가 내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현실은 지금의 어려움을 몽침으로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주지만 몽치지 못하고 있음의 아쉬움을 주기에 더 없이 안스럽기 짝이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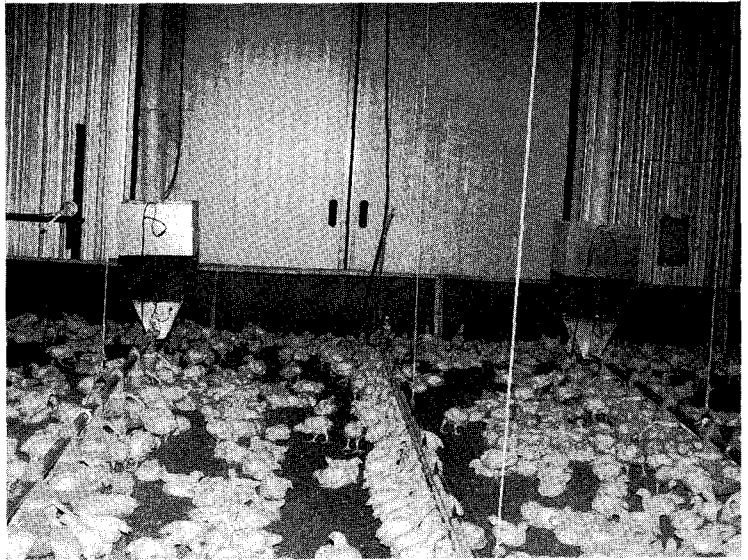
아무리 유능한 인재가 육계분과위원회의 일을 잘하려 노

력한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현 상황에서 발전이 있을리 만무하다. 누가 한들 뾰족한 방법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유에 풍요로우므로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 입장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수 차례에 걸쳐 육계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였고, 무관심에 냉대를 직시하며 농장 일을 함께 챙기면서 직을 수행하는 현 육계분과위원장의 입장을 바꾸어 놓고 한번쯤 생각해 보자. 돌이켜 지난 일년을 회고해 보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 우리 모두의 무관심은 어찌면 큰 불행을 우리 스스로 자초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나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 어찌면 나 자신을 죽이는 잘못된 욕심이었는지 모른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면서도 할 수 없는 처지임을 꼭 짚어 말하지 안더라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육계인 여러분들 모두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결집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농가들의 바램이며 희망이다. 욕심으로 일괄하지 말고 함께 동참하여 한목소리로 대처하여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그리고 산적해 있는 현 문제를 하나하나 헤쳐 나가는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함께 노력하자.

사분 오염의 업계라 하지만 극단의 어려움을 기회로 승화시키는 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상받는 길이고 지금의 어려움을 지혜로 대체하는 길이다. 무한경쟁의 익숙지 못한 현실 태를 타하지 말고 모든 정보와 사육기술을 공



유할 수 있는 내일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우리 육계업계는 이미 계열화에 적응이 되어가고 있고 계열농가로 예측되어 힘없이 끌려다니는 입장이 되었다. 육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도 이미 만들어져 있으나 계열사들의 냉대속에 유명무실화 되어가는 느낌이다. 또한 육계인들은 계열업체들로 인해 쓰다가 못쓰면 버려지는 소모품인 신세로 전락하였다. 과거 1년에 최소 4~5회전을 보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3회전을 하기도 힘든 농가들이 많아졌고 그나마 사육비도 내릴대로 내려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우리 생산자들은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언제까지 기업들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를 내야 되며,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 AI발생에 따른 차후 대책,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육 대체방안 등등 현안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풀어나갈 때, 육계업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양계**